이 보도자료는 수령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	**서울남부지방검찰청** 전문공보관 최성국 전화 02-3219-4420 / 팩스 02-3219-2397	**보 도 자 료** **2022. 1. 6.(목)**

제 목	**머지포인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 수사결과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(제11조 제1항)

▣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·증권범죄수사협력단(단장 박성훈)은 2022. 1. 6.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포인트 상품권 2,521억원을 판매하여 57만명에게 피해를 끼친 甲회사 실사주 A와 대표이사 B를 사기,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, 관계사 대표 C를 불구속 기소하였음

※ 선불전자지급수단은 2개 업종 이상에서 재화·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

▣ A는 액면금 대비 20% 할인을 미끼로 100만명에게 머지포인트 상품권를 판매하였으나, 누적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어 '돌려막기' 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지급하였고, 그 과정에서 甲회사 자금 156억원을 乙회사로 유출하여 그 중 67억원을 신용카드대금, 주식투자, 고가 승용차 리스비,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

▣ '21. 8. 수사 초기부터 검·경간 긴밀히 소통하여 압수수색,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였고, 수사과정에서 상시적인 증거와 법리에 관한 의견교환을 통해 합리적 결론 도출을 도모하였음

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1 주요 피고인

- A (34세, 甲회사 실사주)
- B (37세, 甲회사 대표이사)
- C (36세, 乙회사 대표이사)

※ A, B, C는 남매관계이고, A는 甲회사 지분 97%, 乙회사, 丙회사 지분 100% 보유

2 공소사실 요지

- A, B의 공동범행

- 금융위 등록 없이 ① '20. 1.~'21. 8. 선불전자지급수단인 '머지머니' 발행·관리업을 영위하고, ② '20. 6.~'21. 8. 20% 할인결제 제공하는 'VIP구독서비스' 이용자에게 결제대금 정산해 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 **【전자금융거래법위반】**

- '20. 5.~'21. 8. 머지머니 20%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 누적되어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렵고,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 중단될 수 있었음에도 57만 명의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2,521억원의 머지머니 판매하여 편취**【사기】**

※ 머지포인트 매수자 100만명 중, 사기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한하여 기소함

- A, C의 공동범행

- '19. 8.~'21. 6. 乙회사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, 가족생활비, 주식투자, 생활비, 교회헌금, 차량리스비, 대여금 등으로 사용하여 67억원 횡령 **【특경법위반(횡령)】**

- A의 단독범행

- '20. 11.~12. 머지머니 판매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丙회사에 초과 지급하고, 甲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결손 처리하여 29억 배임**【특경법위반(배임)】**

2 수사경과

- ’21. 8. 13. 금융감독원, 경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건 통보
- ’21. 8. 25. 경찰, 머지플러스·상품권사업자 압수수색(전자금융거래법 관련)
- ’21. 10. 22. 경찰, 머지플러스·판매사 압수수색(사기, 횡령 관련)
- ’21. 12. 9. 법원, 피의자 A, B 구속영장 발부
- ’21. 12. 17. 경찰, 사건 송치
- ’22. 1. 6. 검찰, 피의자 A, B 구속 기소, 피의자 C 불구속 기소

※ ‘22. 1. 5. 피의자 A, B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

3 수사결과 및 의의

-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핵심관계자를 구속 기소함

※ 머지포인트 매수자 실피해액 751억원,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 253억원

- 검찰,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소통하여 압수수색영장,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발부받았고, 범죄성립 시기와 범위, 구속수사 대상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합리적 결과 도출을 도모함
- 서울남부지검 증권·금융범죄수사협력단은 앞으로도 경찰 금융범죄 수사부서와 상시 협력하여 주요 금융범죄를 엄중 수사하고, 그 피해 회복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